

해운대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열어

8월 16~30일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해운대구의회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9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다뤘다. 19일부터는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30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15일간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심윤정 의장은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열정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들과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관내 주요 현장방문 나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월 11일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송정 죽도문화공원,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를 방문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이상곤)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위원장 박기훈)는 8월 9일과 11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파악에 나섰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11일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송정 죽도문화공원 등 3곳을 방문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9일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을 방문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월 9일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은 “해운대구민과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해운대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과 관광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소통하고, 해운대구민 모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신축



장성철 의원
(반여2·3동, 재송2동)

주민들의 접근이 양호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야 한다.



원문 보기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세요

해운대는 민간개발업자의 사냥터인가



김백철 의원
(좌1·3·4동)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게, 공공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원문 보기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세요

마린시티 용도변경, 누구를 위한 개발?



원영숙 의원
(우2·3동)

교통체증, 재산권 침해, 학습침해를 유발하는 마린시티 내 마지막 남은 미개발부지의 용도변경을 결사 반대한다.



원문 보기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세요

